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V.O.M.(Value Of Modern, 책을 ‘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 년 10 월 23 일(토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우**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1. 북클럽 주제 & 방법</p> <p>주제> V.O.M.의 주제는 ‘결핍을 채움’입니다. ‘현대인(우리)’들에게 결핍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채울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p> <p>방법>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가치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드러나는지 찾고, 찾는 과정 속에서 생긴 질문을 서로에게 던진다.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나누고 ‘우리(한 팀)’의 답으로 수렴하며 질문을 마무리한다.</p> <p>2. [첫 번째 만남]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고통 / 수전 손택’ 읽은 후, 책 속에서 ‘공감·연대’의 가치를 찾아보기 ▶ ‘연결’을 넘어 ‘연대’하는 방법을 나눠보기-나눔 속 <p>3. [첫 번째 만남] 핵심</p> <p>★공감·연대★</p> <p>4. 나눔</p> <p>1) 우리가 생각하는 ‘연민’, ‘동정’, ‘공감’은 무엇인지 : 각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연민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동정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이며, 공감은 타인의 사고나 감정을 자기의 내부로 옮겨 넣어, 타인의 체험과 동질의 심리적 과정을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 우리 역시 이 사전적인 의미와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이 책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 그저 연민, 동정, 공감 정도로만 끝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러한 과정 없이 타인의 고통을 오락 정도로 소비하고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하는 것일까? 이 책에서는 타인의 고통에 연민, 동정하며 남의 일로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해결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V.O.M.은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일시적인 공감이 아닌,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공감하기’. 직접적인 실천만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며 잠깐 보고 넘어가는 가벼</p>							

은 공감이라 아니라, 그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처럼 간접적인 실천은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문제는 꾸준하지 못한 것이다. 찰나의 순간, 잠시 안타까워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짐을 덜어내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비워야 한다. ‘순간적인 공감을 넘어 마음으로 연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2)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타인의 고통에는 연민과 동정을 넘어 공감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왜 공감 및 연대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공감과 연대를 할 수 없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공감하며 연대해야 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무분별하게 소비하지 않으면서 우리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나눠보자.

: 우리 팀 중 어느 누구도 당장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디서 잠을 청해야 할지, 혹은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와 나를 공격할지 걱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소셜미디어나 뉴스에서 가끔 전해오는 소식들을 통해, 방금 말한 걱정들을 잠시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저런 걱정들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은연 중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관심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들이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만큼, 우리가 무분별하게 소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들의 고통이며, 관련 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우리 V.O.M. 은 이 저자의 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매 사건마다 공감하며 연대하려고 힘쓴다면 우리의 삶은 비정상적인 삶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사건마다 공감하며 연대하려고 하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보다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지금과는 달리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더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3)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징어 게임’과 같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잔인한 장면들을 즐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자. 물론 실제 상황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따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도 타인의 고통을 무분별하게 소비하게 된다.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세상 가운데, 이 책을 통해 깨닫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극하는 콘텐츠는 매우 많았고,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것이다.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개인의 건강과 위생이 중요해졌고 이를 따라 우리의 행동과 사고도 마찬가지로 더욱 철저히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무분별하게 소비했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공감’과 ‘연대’하려는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일부러 찾아 소비하는 습관을 버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남'이 아니라 '우리'로 살아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 만남을 맺었다.

2021 년 10 월 23 일

참가자대표 : 김**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V.O.M.(Value Of Modern, 책을 ‘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 년 11 월 01 일(월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우**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1. 북클럽 주제 & 방법</p> <p>주제> V.O.M.의 주제는 ‘결핍을 채움’입니다. ‘현대인(우리)’들에게 결핍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채울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p> <p>방법>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가치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드러나는지 찾고, 찾는 과정 속에서 생긴 질문을 서로에게 던진다.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나누고 ‘우리(한 팀)’의 답으로 수렴하며 질문을 마무리한다.</p> <p>2. [첫 번째 만남] 계획</p> <p>▶ ‘문명1 / 베르나르 베르베르’ 읽은 후, ‘소통·협력’의 가치를 찾기</p> <p>3. [첫 번째 만남] 핵심</p> <p style="text-align: center;">★소통·협력★</p> <p>4. 나눔</p> <p>1) 우리는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찾자는 마음으로 책장을 넘겼다. “내가 인간을 좀 알지. 저런다고 너무 격의 없이 대해 주면 안 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편이 나아. 자칫하다간 역할을 바꿔 주인 노릇을 하겠다고 덤빌지도 모르니까! 인간을 집에 데리고 살다가 너무 친해져서 <주인>이라고 부르는 고양이가 어디 한둘이어야지.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 해. 인간이 우리를 받들어 모셔야지. 그 반대는 말이 안 돼. 암, 그렇고말고.” V.O.M. 모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슬쩍 보였다고 생각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와 더불어 이 장면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걸림돌이 되는 태도는 무엇일지 나눠보자.</p> <p>: 해당 대화는 고양이 주인공이 한 말인데, 인간인 우리들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종에 대해 인간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깔보는 듯한 행동,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모습 등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러한 사고가 바탕이 되어있다. 특히, 갑질 문제를 통해 개인 중심적인 사고, 도가 지나친 우월함의 심각성을 볼 수 있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품어주지는 못하고, 약점을 물어뜯고 싸우</p>							

는 모습에서 참 안타깝고 얼른 고쳐야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소통'과 '협력'의 걸림돌이 되는 태도는 바로 '개인 중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우월감'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연대해야 할 사람들이 흩어져서 따로 걷고 있다. 그렇기에 협력은 말할 것도 없이 소통조차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정말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해 외로울 것이며, 이 사회의 성장은 더욱 더뎠을 것이다.

2) “- 상대방과 자기 자신이 동일체가 된 것처럼 느끼는 감정의 상태를 의미한다. 감정을 공유하는 순간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된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하는 이유를 나눠보자.

: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상대방과 당연히 언젠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의 의견을 이해했을 때 갈등이 해결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자기만 아는 어리석은 인간들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명이 공존하고 연대하는 문명'으로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려고 한다. 그리고 “대멸망을 겪고도 여전히 자기들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종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네.”라고 이야기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오늘 발견한 '소통'과 '협력'의 가치는 우리 삶 어디에 채워져야 할지 이야기해보자.

: 첫 번째 질문의 대답에서처럼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따로 떨어져 걷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나만 잘 되면 돼.' 혹은 '나만 아니면 돼.'라는 편협한 생각으로 살지만, 넓게 봤을 때는 '우리가 잘 되어야 해.'이다. 그러므로 각자가 가진 약점을 서로 보완하며 강점을 살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따로 떨어져 걷는 방법이 아니라 '소통'하면서 '협력'해야 한다.

2021 년 11 월 01 일

참가자대표 : 김**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V.O.M.(Value Of Modern, 책을 ‘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 년 11 월 13 일(토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우**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1. 북클럽 주제 & 방법</p> <p>주제> V.O.M.의 주제는 ‘결핍을 채움’입니다. ‘현대인(우리)’들에게 결핍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채울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p> <p>방법>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가치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드러나는지 찾고, 찾는 과정 속에서 생긴 질문을 서로에게 던진다.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나누고 ‘우리(한 팀)’의 답으로 수렴하며 질문을 마무리한다.</p> <p>2. [첫 번째 만남] 계획</p> <p>▶ ‘멋진 신세계 / 올더스 헉슬리’ 읽은 후, ‘행복’의 가치 찾기</p> <p>3. [첫 번째 만남] 핵심</p> <p>★행복★</p> <p>4. 나눔</p> <p>1)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지고 그 계급에 따라 하는 일 모두, 심지어는 결혼할 상대도 정해진다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모두가 자신의 계급에서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p> <p>: 모두가 자신의 계급에서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는 하에서 계급이 정해지고 계급에 의해 하는 일이 정해질 때 만족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계급에서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반복된 삶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 반복된 삶으로 인한 무력감과 우울감이 그들에 삶에 생기게 된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 무력감과 우울감은 그들의 삶에서 다른 부분으로의 탈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이든다. 이렇듯 개인의 우울감과 무력감은 결국 그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 수 없다. 내가 생각할 때 행복한 사회란 모든 개인이 자신이 행복함을 가질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p> <p>2) 계급에 대한 만족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들, 예를 들자면 우울감 등이 있다. 이러한 감정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의학·과학자들이 개발한 ‘소마’라는 부작용 없는 마약이 나온다. 정말 대중적</p>							

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했을 때, '소마'라는 인위적으로 행복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일지 나눠보자.

: '소마'라는 인위적으로 행복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인위적으로 행복을 취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창출하는 아름다운 행위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이란 감정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마다 모두 다른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감 등 감정을 예방하기 위한 인위적인 방법은 행복이 아닌 또 다른 어두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5. 유토피아 / 모어

사회적 문제가 난무하는 현재 우리는 어떤 사회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충분히 평화롭고 행복을 추구하며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뉴스에는 자꾸 어두운 이야기들이 실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 얕은 지식으로 심오한 문제에 접근해서 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과거의 과학자들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로 돌아가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에밀 뒤르캄의 자살론,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많은 이론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모어의 유토피아에 주목했다. 유토피아는 기본적으로 평등과 실용, 쾌락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이다. 사유재산이 없으며 신분에 상관없이 똑같이 하루 6시간 노동하고, 그렇게 생산한 생필품을 공유재로 삼아 살아간다. 노동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여가시간으로 쓰이며, 사람들은 이때 오락, 자기계발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이때 여가활동은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음주·사치·매춘·도박 등 개인의 개발에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은 일절 금한다. 사치품보다는 얼마나 실용적인가로 물질의 가치를 따진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구조에서 장단점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유토피아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유토피아에서는 사유재산을 지양하고 모든 재물이 공동재 체제이며, 사람들은 차별없이 동등하게 공동재를 누리고 재산이 넘치거나 모자르는 일이 없게 된다. 현대 사회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빈부 격차이다. 부유한 사람은 재산을 더욱 불리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럴 기회조차 잡기 힘들어 사회적 불균형은 더욱 심해진다. 하지만 유토피아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결핍이나 생계 유지의 위험에서 기인한 범죄들이 사라지고, 경쟁 심리가 사라져 메마른 사회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건강의 향상과도 연결된다. 불규칙적인 삶과 과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유토피아의 규칙적이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는 생활은 말 그대로 치료약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고 그야말로 완벽한 사회로 생각되는 유토피아에서 인간에게 악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발견했다. 일단, 개인을 위한 법보다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법들이 많은 점에서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공동체 생활을하기를 거부하는 자들과는 전쟁을 벌인다'라는 내용과, '허가 없는 여행을 하면 노예로 전락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모두 같은 노동을 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개개인들은 개성을 잃고 고리타분하게 살아갈 우려가 있다. 이런 변화 없는 생활 양식이 특히 과학·기술의 혁신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하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개의 칼날을 갖고 있는 유토피아에 대해 우리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봤다. 먼저 '좋다'는 데 집중한다면 그렇게 찾아 헤맸던 낙원이나 실현하고자 애써온 이상 사회를 가리키지만 '없다'는 데에 초점을 두게 되면 유토피아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꿈과 환상에 그치고 만다. 과연 모어는 전자의 관점이었을까, 후자의 관점이었을까? 우리는 전자의 관점에서 본 '유토피아는 단순히 지금, 여기에 없는 이상 사회'이길 믿지만, 아마 현재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거나 발견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모든 이들의 이상적인 모습을 하나의 생각으로 축약하다보니 공동체 위주이며, 개인의 권리나 보호가 존중되지 않았다. 개인의 이상적인 나라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2021 년 11 월 13 일

참가자대표 : 김**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V.O.M.(Value Of Modern, 책을 ‘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 년 11 월 22 일(월요일) / 장 소 : CLC 그룹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우**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1. 북클럽 주제 & 방법</p> <p>주제> V.O.M.의 주제는 ‘결핍을 채움’입니다. ‘현대인(우리)’들에게 결핍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채울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p> <p>방법>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가치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드러나는지 찾고, 찾는 과정 속에서 생긴 질문을 서로에게 던진다.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나누고 ‘우리(한 팀)’의 답으로 수렴하며 질문을 마무리한다.</p> <p>2. [첫 번째 만남] 계획</p> <p>▶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 마이클 셀러버거’ 읽은 후, ‘희생·배려·이해’의 가치를 찾기</p> <p>3. [첫 번째 만남] 핵심</p> <p style="text-align: center;">★희생·배려·이해★</p> <p>4. 나눔</p> <p>1) ‘아마존을 개발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 가난하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환경을 생각해서 아마존을 개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행위와 주장으로 인해 반드시 수반되는 ‘희생·배려·이해’를 생각해보자.</p> <p>: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이의 ‘희생’, ‘배려’, ‘이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희생’, ‘배려’, ‘이해’에는 꽤나 구두쇠이다. 이것 역시, 첫 번째 만남에서 나눴던 ‘타인의 고통을 무분별하게 소비하려는 모습’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어쩌면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남의 ‘희생’, ‘배려’, ‘이해’ 덕분에 ‘나’, ‘우리’가 행복한 것만 생각하는 것 같다. ‘나’의 행복을 위해 그들 속에 있는 ‘남’에게 감히 ‘희생’, ‘배려’, ‘이해’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 돌아보았다. ‘희생’, ‘배려’, ‘이해’가 중요하다 배웠으니 입으로 고백하긴 쉽지만, 실제 상황에서 결코 ‘희생’, ‘배려’, ‘이해’를 베풀기 힘들다. 따라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숨겨진 ‘희생’, ‘배려’, ‘이해’들을 잘 찾아내고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p>							

2)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실제로 환경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 정보를 더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보가 이곳저곳에서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고 받아들이는 것에 개방적인 사고와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가진 정보가 틀릴 수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배운 대로, 알려진 대로 믿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 배운대로, 알려진 대로 믿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이 오류인 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배운대로, 알려진 대로 믿게 된다면 오류가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지 생각함으로써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의 기회를 날리게 되는 것이다.

5. 이기심 탐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도 결국 누군가의 당연한 ‘희생’, ‘배려’, ‘이해’를 바라고 있었다.

: 미세먼지는 매우 작아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까지 스며든다. 심지어 천식, 심혈관 질환 등의 질병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광촉매 도료, 야외용 공기청정기, 인공강우, 실내 공기정화기 설치 등을 시도했다. 우리는 오늘 야외용 공기청정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야외용 공기청정기는 엄청난 크기와 소음이 있다.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집 옆에 설치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거라는 주장과 더불어 기술적인 문제로 운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이슈가 있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다른 사람의 ‘희생’, ‘배려’, ‘이해’로 편해지려는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021 년 11 월 22 일

참가자대표 : 김**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V.O.M.(Value Of Modern, 책을 ‘봄’)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 년 12 월 01 일 (수요일) / 장 소 : CLC 그룹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우**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1. 북클럽 주제 & 방법</p> <p>주제> V.O.M.의 주제는 ‘결핍을 채움’입니다. ‘현대인(우리)’들에게 결핍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채울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p> <p>방법>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가치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드러나는지 찾고, 찾는 과정 속에서 생긴 질문을 서로에게 던진다.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나누고 ‘우리(한 팀)’의 답으로 수렴하며 질문을 마무리한다.</p> <p>2. [첫 번째 만남] 계획</p> <p>▶ ‘신곡 / 단테’를 읽은 후, 책 속에서 ‘만족’의 가치를 찾아보기</p> <p>3. [첫 번째 만남] 핵심</p> <p style="text-align: center;">★만족★</p> <p>4. 나눔</p> <p>1)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고 지옥 입구에 써져 있다. ‘희망, 꿈, 비전’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보여주는데, 이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N포 세대’와 비교하며 살펴보자. 우리 사회는 과연 ‘희망’과 ‘꿈’과 ‘비전’이 없는 사회인 것인가?</p> <p>: 희망과 꿈과 비전의 유무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 희망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희망, 꿈, 비전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 경쟁이 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경쟁들에서 밀리게 되면 희망, 꿈, 비전이 없어지는 것 같다. 물론 경쟁에서 멀어져 자신의 희망, 꿈, 비전을 찾아가는 사람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것들의 유무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한다.</p> <p>2) 지옥에 갈 만큼 중한 죄를 짓지 않았고, 천국으로 갈 만큼 선행을 베풀지 못한 자들은 연옥으로 가게 된다. 이곳에는 연옥의 산이 있는데 ‘교만, 질투, 분노, 나태, 인색, 탐식, 음욕’이 있어 순례자의 길에서 걸듯이 죄를 씻어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러한 연옥의 산에서 소개된</p>							

것처럼 '교만, 질투, 분노, 나태, 인색, 탐식, 음욕' 모두 욕심이다. 우리는 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

: 우리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행복'과 '만족' 모두 붙잡고 싶지만,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과분한 것이 되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도 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자면 우리에게 끝없는 욕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가진 것들과 남들이 가진 것을 비교하기 쉬운 세상이고, 내 안의 시기와 질투를 표할 때가 많고 그러면서 아쉬움이 생기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기는 커녕 더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

2021 년 12 월 01 일

참가자대표 : 김**